

## 출신성분에 따른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기제에 관한 비교분석

김윤나<sup>1</sup> · 주경필<sup>2</sup><sup>1</sup>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sup>2</sup>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 The Synthetic comparative analysis of cultural Acculturation mechanism from North Korean women Elite-class in South Korea

Yun-Na Kim<sup>1</sup>, K. P. Joo<sup>2</sup><sup>1</sup>Department of Youth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sup>2</sup>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7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출신성분에 따른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의 재검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출신성분제도, Berry의 문화적응 이론,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고 IRB심의를 끝낸 2014년 12월 15일~2015년 2월 30일까지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탈북여성이 겪는 사회적 정체감과 문화적 유능감을 밝혀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출신성분에 따른 남·북한정체감(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은 개별적인 사례 특성에 따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구체화된 발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eterogeneous acculturation patterns of elit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study employed a synthetic comparative analysis.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5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in South Korea were conducted. In addition, the research team implemented 20 open-ended surveys with other defectors. Through this study, we have found various types of cultural adaptation in the group of the elite North Korean women in South Korea. The study findings imply tha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national policies that support different types of North Korean defectors. Putting all North Koreans into one category might result in alienation and discrimination to some groups. Thus how the participants reframed their social identify in South Korea illuminates essential facets of human-right education, especially education for refugees and immigrants in different global and multi-cultural contexts.

**색인어** : 북한이탈주민, 탈북여성, 문화적응, Berry, 출신성분**Key word** : North Korean refugee, North Korean women, cultural Acculturation, Berry, Elite-class<http://dx.doi.org/10.9728/dcs.2017.18.2.32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0 March 2017; Revised 19 April 2017

Accepted 25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K. P. Joo**

Tel: +82-02-3668-4408

E-mail: kpjoo@knou.ac.kr

## 1.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9월 입국자 기준으로 29,830명이며 이중 여성은 탈북남성 8,716명에 비해 21,114명으로 71%에 달하고 있다[19]. 탈북여성은 자녀양육의 책임도 지고 있어 탈북 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은 사회적 그리고 통일대비 미래사회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탈북여성의 경우 탈북과정에서부터 정착생활까지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3], [7], [15], [8], [10]. 일부 탈북여성은 중국이나 제3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적응전략의 하나로 결혼을 선택한 결과 2-3개의 국적을 가진 가족원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형태의 국제결혼 가족형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이혼, 재혼 또는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갑자기 동거하는 등 여러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가족갈등 및 가족 해체 및 재구성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15].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서의 탈북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차별과 성적인 이미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는 탈북여성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알려주고 있다[13]. 현재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탈북여성의 특성 중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2011년 ‘함경북도’라는 응답이 64.2%로 가장 높았으나 2012년에는 63.5%로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함경남도’ 10.5%에서 9.7%, ‘양강도’(6.4% > 8.9%)로, 탈북이 용이하고 출신성분이 안 좋은 국경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평안지역에서 주로 거주하며 출신성분이 좋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평양남도’ 거주자는 2.9%에서 3.2%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2012) 북한 출신 지역의 경우, ‘양강’ 출신은 연령대가 낮은 최근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평양’ 출신은 50대(8.1%)와 재북 확률이 높을수록, ‘평북’ 및 ‘강원’ 출신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한거주 기간이 오래된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출신성분에 따른 특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한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성분분류사업과 관련된 국내의 많은 연구는 주로 성분분류에 기반을 둔 사회 계급적 갈등구조와 사회 불평등 차원 또는 성분분류에 의한 주민통제 및 계층이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14].

북한은 일반적으로 성분분류에 의하여 주민계층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놓고 성분에 의한 포용과 숙청·감시·통제·평가·보상을 해왔고 북한사회에서 거주지 배정은 자발적인 자신의 선택이 아닌 당의 명령에 따라 출신성분에 근거하여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기반하여 탈북여성이 북한사회에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계급은 공통의 생활방식·문화·관습·정치성향 등을 공유하는 공통의 사회적 지위를 지닌 응집적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해방 후 북한의 계급정책은 국가의 성격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의 질적 전환을 이끌

어낸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에 계급문제는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테마의 하나이다 [4]. 또한 북한사회는 거주이전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응 행태에 따른 특성도 분석하여 이러한 특성이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전략 및 기제에 어떠한 영향 및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안태윤(2015)에 의해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나 1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연구였고 남한 적응에서의 세밀한 생존전략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어 아직까지 출신성분에 기초한 거주지 특성에 따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적응 전략에 연구는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11]. 이와 더불어 남한에 입국비율이 높으며 아동·청소년의 자녀양육 부담을 비롯한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증가해가는 탈북여성의 특성을 좀더 면밀하게 연구함으로써 이들이 위치해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견고히 하여 향후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최소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가 난민 이주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해보고자 하였다[1], [3]. 북한이탈주민의 이주는 난민이주처럼, 개인적 차원에서는 전쟁 및 기근에 의해 피해받고 집단적 차원에서 대규모의 탈출이나 지배를 당하게 되어 탈출 전 혹은 탈출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시달리게 되는 특징을 보인다[23].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과는 달리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이질 언어 문제와 인종 문제는 없지만, 미묘한 대인관계 방식과 체제 원리상의 차이, 양 체제간의 6.25 전쟁 경험과 분단의 대립 등에 의한 독특한 문화 차이가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착 지원 시스템이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모델이 수용할 수 없다는 연구도 제기되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에 입국비율이 높은 탈북여성 그리고 점차 증가해가는 성분에 기반한 출신지역적 특성이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을 적용해볼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수사례의 깊이있는 내용 뿐 아니라 연구대상을 비교하면서 인과관계의 특성을 밝혀 독립된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고, 동시에 전체로서의 맥락에 접근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변인중심의 접근과 맥락중심·사례중심 접근을 통합하여 결과변인을 산출함으로써 원인변인들이 어떤 조합들로 결합하는지를 밝히고 다중결합적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북한이탈주민 대상연구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례를 다룰 수 밖에 없었던 질적연구의 한계와 설문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별로 너무도 상이한 대상에게 설문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증가해가는 북한이탈주민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원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규모의 조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양적연구의 한계를 최대한 보완

하고자 하였다[6].

## 2. 이론적 배경

### 2.1 북한의 출신성분제도

인민 개개인의 계급적 소속 분류를 모색한 성분조사사업이 해방직후부터 실시되었다[4]. 주민 성분 즉 출신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1960년도 주민구성 재등록 사업결과로 출신성분은 계층과 계급으로 분류하여 3대 계층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의 51개 분류를 말한다. 2012년 6월 6일 북한인권위원회(HRNC,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가 북한의 사회계급체계를 분석한 보고서 ‘성분-북한의 사회계급’에 따르면 김일성 주석이 만든 출신 성분 제도는 대다수의 주민을 억압하는 것으로 성분 제도에 의해 모든 주민들의 운명과 인생이 정해진다고 한다[20]. 특히 이 분류는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지며, 특권을 가진 ‘핵심 계층’은 12개로 분류되고 주로 평양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주민들과 달리 식량배급과 주거,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계층은 노동자, 고농,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 유족, 애국 열사 유족,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 가족 등을 의미한다. 18개로 분류되는 ‘동요 계층’은 중소상인, 수공업자, 소공장주, 하층 접객업자, 중산층 접객업자, 무소속, 월남자 가족,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 중국 귀환민, 일본 귀환민, 안일·불화·방탕한 사람, 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 유아, 경제 사범 등을 의미한다. 21개로 분류되는 ‘적대 계층’은 자본가, 부농, 지주, 친일·친미 주의자, 반동 관료, 입북자, 개신교·불교·천주교 신자, 탈당자, 적(敵)기관복무자, 체포자·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 분자, 처단자 가족, 출옥자, 정치범 등을 의미한다[18].

‘적대 계층’에 포함된 주민 중 15만 명에서 20만여 명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죄인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처벌하는 중세시대의 연좌제가 아직도 남아있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주민의 가족이 3대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이 1천 600여만 명이나 되며 북한 전체 인구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북한주민의 성분 분류 및 대우

Table 1.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of North Korean

계층	부류	대우
핵심 계층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 이후 양성된 인테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당, 정, 간부 등용 -타 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 계층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 접객업자, 중산층 전객업자, 무소속, 월남자가족, 중농, 민족자본가,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 이전 양성된 인테리, 안일·부화·방탕한자, 접대부 및 미신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 계층	8·15 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도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적자, 적기관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 관계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옥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강제 이주 격리 수용)·감시(지정하여 호시 동태 감시)·포섭(집중적 교양) 대상으로 분류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출처 : 통일부(1999), 2000 북한개요, p. 336

### 2.2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관한 고찰

그동안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개념 모델과 엄격하게 설계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개념적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된 접근방법이 Berry에 의해 제안되었다 [21]. Berry(1997)는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변화를 문화적(집단) 차원과 심리적(개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23]. Berry는 다차원 모델에 입각하여 네 가지 문화적응 전략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응답자들의 조합에 따라 양측의 응답이 ‘예’인 경우에는 통합, 양측의 응답이 모두 ‘아니오’인 경우에는 주변화가 되는 것이다. 통합형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착사회와도 충분히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화형은 이전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이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형은 외부세계와 정착사회 문화와의 연결이 거의 없고 자기 고유 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형은 자신의 고유 집단과 새로운 정착사회 모두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뜻한다. 주변화 유형의 사람들은 모두 외부세계에 대해 적대적 태도, 소외상태, 자아정체감 상실 등의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21]. 이민자들은 통합(integration)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4]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에 사는 한국인과 포르투갈인은 통합 이외의 다른 세 가지 모두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일본에 사는 서양인과 노르웨이에 사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분리(separation)를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22] 이민자들은 본래의 문



화정체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류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특성을 알 수 있다. Berry(1997)는 문화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요인으로 원 사회에서의 민족지적 특성(언어, 종교, 가치 등), 정치 상황(갈등, 내전, 억압 등), 경제 상황(빈곤, 불균등, 기아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혼잡성, 인구 폭발 등)을 제시하였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도 Berry(1997)의 이론에 기초하여 탈북여성의 출신 성분에 따른 문화적응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 2.3 선행연구 검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이주민, 유학, 파견근무, 다국적 기업활동 등과 같이 다른 문화간 상호교류가 증가하면서 연구들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대부분 Berry의 문화적응 개념을 많이 적용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3]. 먼저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를 밝힌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내에서 심리적 문화적응을 하는데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사회 지각적, 성격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적응 기제가 독특함을 확인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심리적 문화적응 결과 지표로서 인지, 정서, 행동 측면을 포함하여 최종 모델을 검증한 결과, 남한 문화 지향성이 생활만족도에는 정적으로, 우울감에는 부적적으로 문화적 유능감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적 정체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북한 문화 지향성은 생활만족도에만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다른 심리적 적응 결과 지표에 대해서는 매개변인인 지각된 동화 압력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한 문화 지향성은 지각된 동화 압력에 정적 영향을, 지각된 동화 압력은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사회적 정체감에 정적 영향을, 문화적 유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서 지각된 동화 압력은 북한 문화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양가적인 기능을 보여주었다. 즉, 지각된 동화 압력이 클 경우 우울감을 강하게 느끼는 반면, 사회적 정체감과 문화적 유능감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행동 중심 적응 지향군, 인지 중심 적응 지향군, 정서 중심 적응 지향군, 통합 적응 지향군의 4가지 유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균일한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특정한 유형에 따라 적응해 나가는 개인차를 드러냄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군집은 3년 미만 정착 경과 집단은 행동과 인지 중심의 적응 행태를, 4년차 이상 집단은 정서 중심의 적응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연구방법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김형태(2014)의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 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는 그간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선행연구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정성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을 문제제기하

면서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방법의 통합을 실시하였다. 즉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추출하고, 정성적·정량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 실증적으로 설명 가능한 변인들의 조합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도출함으로써 제한적인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응 유형과 관련해서는 정서적 지지원이 없는 경우에 심리적응을 나타낸 사례가 없었으며 북한출신 친구이든, 남한친구이든 적어도 하나가 긍정적인 친구관계일 때 정서적 지지원의 존재와 결합하여 심리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적응 유형은 한국에 오기 전 제3국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청소년이,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특성만을 고려했을 때는 남한친구와의 부정적인 관계와 정서적 지지원의 부재인 경우가 심리부적응의 주요 결합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응 유형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없을지라도 북한출신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가족 이외의 정서적 지지원이 존재하면 사회적응인 것으로 나타나 친구관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적응 유형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이 모두 사회부적응 유형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가족이 정서적 지지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관련했을 때에는 남한친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사회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 최근에 이루어진 안태운(2015)의 ‘한 엘리트 북한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체주의 독재사회인 북한에서 개인의 삶은 체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특히 여성은 “체제의 폭압에 대하여 협상과 순응, 때로는 보이지 않는 저항과 위반의 방식을 택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최대한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1명을 대상으로 한 구술생애사 연구였고 남한 적응에서의 세밀한 생존전략을 파악하는 한계가 있었다[11].

## 3. 연구방법

### 3.1 연구과정 및 절차,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노출을 꺼려하는 연구대상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연구책임자가 다수의 연구경력을 통해 알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동의 의사를 밝힌 분들 혹은 이 분들을 통한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선정했다. 본 연구자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 혹은 단체를 통해 1차적으로 기관 담당자에게 공식 문서 혹은 유선상 구두 설명 후 연구관련 설명서 및 동의서를 보내고 이를 검토받

은 후, 탈북여성의 섭외 협조를 받았다. IRB심의를 끝난 2014년 12월 15일~2015년 2월 30일까지 FGI 및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지 배부는 연구대상자가 노출을 부담스러워하여 이미 라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는 gateway-person(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경력자)을 통해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설문수거는 설문이 끝난 즉시 바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중 먼저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 가운데 SES, 남한 거주기간, 북한 출신 거주지 등에 중복성이 없는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 경우 제외하였다.

### 3.2 통합적 비교분석

본 연구는 통합적 비교분석(Synthetic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시도하였다. 통합적 비교분석 방법은 소수사례의 깊이 있는 내용 뿐 아니라 연구대상을 비교하면서 인과관계의 특성을 밝혀 독립된 사례에 대한 이해를 유지하고, 동시에 전체로서의 맥락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유사하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적응 유형을 연구한 김형태(2004)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먼저 표적집단면접을 통해 정성적 자료를 평가하고자 자기기입식 설문문항 구성을 위한 평가 주제 영역, 문항, 보기 등을 추출하기 위해 5명 내외로 구성된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는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 1981)의 네 가지 질적 연구 평가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기반한 연구의 엄격성(rigor)에 따라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질문은 반구조화된 형태로 남한사회에 편입되기 이전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경, 출신성분이 좋다는 것의 의미, 현재의 상황, 심리·정서·사회·문화 경험에 관한 질문을 드렸다. 장소는 북한이탈주민과 본 연구자의 지리적 여건과 시간을 고려하여 ○○병원 집단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피면접자에게 법적 책임 등에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고 녹음을 하였고 불충분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추가 보충 답변서를 받았다. 이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김형태(2004)의 연구에서 23명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나이, 탈북 시기, 제3국 거주 시기, 남한 입국 시기, 출신 고향, 북한에서의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내용과 채정민(2003)에서 활용한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척도(북한문화지향성+남한문화지향성,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척도), 문화적 유능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 지각된 동화 압력(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 문화적 이질감(같다에서 매우 많이 다르다로 5점 척도) 등의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은 최저 28세에서 최고 74세였으며 1997년 오래전에 탈북한 여성에서부터 2012년 탈북한 여성까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중국에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최장 156개월(13년) 거주한 경우도 있었다. 태국,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거주했던 기간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었던 참여자에서부터 최장 60개월(5년) 거주했던 참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남한 입국년도는 1998년도에 입국한 참여자, 2013년에 최근에 입국한 참여자도 있었으며 고향은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자들로 북한에서의 직업은 전문직에서부터 무직부양, 노동자, 봉사분야, 예술체육 분야 등 다양하였다. 이들의 가족유형(남편의 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탈북여성이 남한에 와서 한부모로 살아가는 경우, 남한남편, 남한에 먼저 와 있는 북한남편, 북한에서 함께 남한으로 온 북한남편, 조선족남편, 한족남편 등의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나 남한에 온 북한남편은 남한의 북한과는 너무 다른 남녀평등 사상으로 인해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한국말을 할 수 없는 한족남편의 경우 취업이 안되어 경제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여 탈북여성이 문화적응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 혹은 제3국에서 머무르면서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못받아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좋은 탈북여성 보다 문화적응하는데 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탈북여성은 대부분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신분이나 지위, 직업 등이 자신의 노력에 의하기보다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남한에 와서 갑자기 낮아진 자신의 신분과 남한 사람들의 무시 등을 참아내기 힘들어 한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여 극복하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오히려 좌절하고 남한에 온 다른 북한사람들을 만나기조차 꺼려한다. 정보의 부족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다보니 말투도 변하지 않아 점점 더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탈북여성 적응기간이 보통 3~5년이라면 출신성분이 좋은 탈북여성의 경우 이 보다 좀 더 오래 걸린다. 그러나 추후 적응을 하게 된 출신성분이 좋은 여성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여 박사과정을 다니거나 북한관련 연구프로젝트 참여, 강사 혹은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적 직업을 갖게 된다. 출신성분이 좋은 탈북여성의 경우 남한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감시, 통제를 받지 않아서 혹은 이웃, 학교, 회사,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인 경우가 많다. 자유에 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신성분이 낮은 탈북여성의 경우는 내가 일한만큼의 소득을 받건, 북한생활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표 2.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구분	연령	탈북년도	중국거주 (개월)	타국거주 (개월)	입국 년도	고향	북한에서 의 직업
1	53	1997	12	0	1998	평안	전문직
2	48	2007	60	60	2011	평안	전문직
3	39	2006	5	5	2006	평안	관리직
4	45	2000	4	4	2000	함경	전문직
5	37	2000	18	0	2002	함경	-
6	36	2000	18	0	2001	평안	전문직
7	25	2004	116	1	2011	평안	무직부양
8	43	2005	-	6	2006	함경	노동자
9	47	2007	24	9	2010	평안	노동자
10	38	2009	6	3	2010	함경	관리직
11	74	2007	3	7	2008	함경	관리직
12	50	2005	60	5	2009	함경	무직부양
13	37	2012	156	3	2012	함경	전문직
14	64	2003	6	-	2004	평안	봉사분야
15	35	1997	38	6	2003	함경	예술체육
16	43	1998	112	3	2007	함경	노동자
17	28	2004	118	0	2013	평안	무직부양
18	34	2003	-	2	2003	함경	노동자
19	43	2002	100	0	2010	평안	노동자
20	50	2003	86	2	2009	평안	봉사분야

4.2 출신성분의 의미 및 탈북 사유

1) 출신성분이 좋다는 것의 의미

면접을 통해 탈북여성들이 인식하는 출신성분이 좋다는 의미는 정치적, 계급적, 당파 수령에게 충실한 사람, 즉 조선로동당 원을 이루는 말로 북한에서는 흔히 백두산 줄기를 타고난 사람들은 대부분 출신 성분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가정환경을 말하는 경우로 특히 항일투사가족은 혁명의 1세로, 전쟁참가자가족은 혁명의 2세로 보지만 지금은 해외를 통해, 탈북자들 통해 돈방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 좋은 대학, 직업을 가진다고 하였다. 반면 출신성분이 나쁘다는 의미는 북한사회에서 적대계층 또는 동요계층에 속하여 대학과 승진은 생각도 못하고 탄광, 광산, 농장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당했거나 북한사회에서 감시대상이기도 한다. 지주, 자본가, 종교, 현시대에 과오를 범한자로서 반 혁명분자를 말하며 남한 출신이거나 중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 또는 행방불명 분들은 출신성분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죄를 지어 감옥생활하였거나 부모님 출신이 남한이나 중국이면 간부등용이 힘들지만 간혹 특별히 머리가 좋다고 하면 국가이익차원에서 공부도 시키고 민족간부양성으로 키우기도 한다.

2)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이 탈북하는 이유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이유는 신변위험을 피해서 혹은 북한체제가 싫어져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독재체제가 싫었거나 자유가 없는 북한정치가 싫어서 (정치적 이유), 북한정부가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믿음”이라는 울가미에 올라매고 항상 “모범”을 강요하여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 북한에서 말실수 혹은 경제적으로 과오를 범했을 때, 이미 남한에 온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족을 찾거나 결합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출신성분이 좋

은 사람이 탈북한다고 하였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탈북하는 경우는 대부분 식량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4.3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및 부적응

1) 문화적응 및 부적응의 의미

면접결과 문화적 적응이란 이질화된 언어에 대한 이해, 노래와 춤, 의상생활, 식생활, 교제문화 등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문화 부적응은 상기의 사항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비판하면서 따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부적응을 남한 언어나 외래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며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 생활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 넘었어도 자립하지 못하고 국가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생활하는 것, 남한의 대중문화나 옷차림을 똑같이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것 등을 의미하였다.

2)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

연구참여자 20명중 통합형은 14명, 동화형은 4명, 무응답은 2명이었다. 무응답 1명의 경우 남한문화지향성에 관한 문항들을 또 한 분은 북한문화지향성에 관한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두 분 다 평안도 출신이었고 북한에서의 직업은 노동자였다. 주거지 및 북한직업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았다. 평안도가 고향인 분들은 학력도 전문대졸 이상으로 함경도가 고향이신 분들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함경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고등중학교 중퇴이거나 고등중학교 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평안도가 출신지인 대졸이상인 탈북여성인 경우 통합형을 나타내고 문화적 유능감도 높았으나 지각된 동화 압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에서의 학력은 대학교 진학에 대한 정부차원의 50% 장학 지원으로 대학교 재학중이거나 재학졸업인 경우가 많았다. 평안도 출신이면서 북한에서의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남한 학력에 대해 무응답으로 응답하시거나 대학원 재학 이상이였다. 면접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출신성분이 좋은 분들이 남한에 와서는 북한에서의 좋았던 대우에 비해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화로 무시를 받는 느낌에 더 적응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보다는 주어진 특권으로 산 경우가 많아 이리저리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삶을 개척해온 함경도 출신의 분들보다 적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도 하였다.



표 3.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의 평균

Table 3. Average of psychological culture adaptation strategy, cultural competence, perceived assimilation pressure, cultural heterogeneity

구분	고향	북한 직업	북한 학력	남한 학력	북한 정체감	남한 정체감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
1	평안	전문직	대졸 이상	무응답	2.88 (+)	2.88 (+)	2.88 (통합형)	3.69	2.43	3.2
2	평안	전문직	전문대졸	대재	2.25 (+)	3.13 (+)	2.69 (통합형)	3.33	3.21	2.7
3	평안	관리직	전문대졸	대재	3.25 (+)	3.13 (+)	3.19 (통합형)	3.46	3.14	3.2
4	평안	전문직	대졸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2.5(+)	3(+)	2.75 (통합형)	3.28	2.5	3.6
5	평안	무직	전문대졸	대졸	1.88 (-)	3.75 (+)	2.81 (동화형)	2.92	3.43	3.4
6	평안	노동자	전문대졸	대졸	3.13 (+)	-	-	3.56	2.71	1.6
7	평안	무직	전문대졸	대재	2.25 (+)	3.88 (+)	3.06 (통합형)	3.15	3.71	3.5
8	평안	봉사분야	전문대졸	대재	2.5(+)	3(+)	2.75 (통합형)	3.13	2.57	4.4
9	평안	노동자	고졸	대졸	-	3.25 (+)	-	2.87	3.5	4.6
10	평안	봉사분야	전문대졸	대졸	2.25 (+)	3.13 (+)	2.69 (통합형)	3.21	3.21	2.7
평안도 출신 평균								3.26	3.04	3.29
11	함경	전문직	고졸	무응답	2.75 (+)	3.63 (+)	3.19 (통합형)	3.37	3.69	2.4
12	함경	-	고졸	무응답	2.5(+)	2.88 (+)	2.69 (통합형)	3.33	3.5	3.9
13	함경	노동자	고졸	대재	1.75 (-)	3.88 (+)	2.81 (동화형)	3.28	2.14	4.4
14	함경	관리직	고졸	학교 다니지 않음	2.75 (+)	3.13 (+)	2.94 (통합형)	3.33	2.43	3.8
15	함경	관리직	고졸	대졸	1.25 (-)	4(+)	2.63 (동화형)	3.39	4.79	4.6
16	함경	무직	고졸	대재	2.63 (+)	3.25 (+)	2.94 (통합형)	3.13	2.86	3.7
17	함경	전문직	고졸	대재	1.88 (-)	3.88 (+)	2.88 (동화형)	3.08	2.64	4.3
18	함경	예술체육	고졸	대재	2.75 (+)	3.13 (+)	2.94 (통합형)	3.23	2.93	2.6
19	함경	노동자	고졸	대재	2.63 (+)	3.88 (+)	3.25 (통합형)	3.79	3.79	4.6
20	함경	노동자	고졸	대재	2(+)	3.63 (+)	2.81 (통합형)	3.21	2.71	4.2
함경도 출신 평균								3.31	3.15	3.85
전체 평균								3.29	3.11	3.52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은 다 사례마다 틀린 경우로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남한문화지향성이 높고 북한문화지향성이 낮을 경우 문화적 유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남한문화지향성, 낮은 북한문화지향성, 낮은 지각된 동화압력일 경우 비교적 낮은 문화적 유능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한문화지향성이 높은 경우는 지각된 동화압력이 높고, 문화적 유능감도 평균 이상이였다.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이 높고 문화적 이질감이 낮을 경우 지각된 동화압력도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평안도 출신은 함경도 출신에 비해 문화 이질감은 더 적게 느끼고 지각된 동화 압력은 더 낮게 느끼며 문화적 유능감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 유능감은 평균 3.29점, 지각된 동화 압력은 평균 3.09점으로 중간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 유능감의 경우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사례는 출신지역이 평안 지역이나, 북한에서 무직부양으로 지내다가 남한사회에서 동화형의 문화적응 유형을 나타내는 경우와 출신지역이 평안지역이나 북한에서 노동자로 지낸 경험을 한 사례였다. 이 사례의 경우 북한문화 정체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지각된 동화 압력을 평균이상으로 강하게 느낀 사례로는 함경도 출신의 관리직 직업을 가졌던 사례로 동화형인 문화적응 유형을 나타낸 경우(4.79점)와 함경도 출신의 노동자 직업을 가졌던 통합형 문화적응 유형을 나타낸 경우(3.79점) 사례였다. 문화이질감도 평균 3.57점으로 남한으로 이주하고 나서 처음 6개월 이내에 남한 문화가 북한 문화와 비교해서 매우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북 여성이 남한 문화가 북한 문화와 매우 다르다고 느끼는 문화 영역으로 가장 높게 응답한 것은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었으며(8명) 그 다음 사람들의 가치관(7명), 집단활동 형태(7명)순이었다.

표 4. 문화이질감에 관한 응답 현황

Table 4. Response to cultural heterogeneity

구분	같다	중간	다르다	합계
사람들의 식습관	3	9	8	20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	3	7	10	20
사람들의 사고(생각하는) 방식	2	8	10	20
사람들의 말투	1	7	12	20
사람들의 차림새(외모, 옷 스타일)	3	8	9	20
사람들의 가치관	1	6	13	20
사람들의 대인관계 양식	6	6	8	20
사람들의 취미활동	5	4	11	20
집단활동 형태(모습)	3	5	12	20
사람들의 갈등해결 방식	4	7	9	20

### 3) 출신성분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의 차이 분석

출신성분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신성분에 따라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사례에 따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출신지역에 따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의 차이분석

**Table 5.**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according to the place of origin of psychological culture adaptation strategy, cultural competence, perceived assimilation pressure, cultural heterogeneity

구분	지역	N(명)	평균	SD	t값	df
북한정체감 지향성	평안	10	2.906	.196	-1.114	17
	함경	10	2.895	.188		
남한정체감 지향성	평안	10	3.315	.198	1.679	17
	함경	10	3.262	.263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평안	10	3.148	.790	.136	18
	함경	10	3.043	.457		
문화적 유능감	평안	10	3.850	.778	.512	18
	함경	10	3.290	.861		
지각된 동화 압력	평안	10	2.288	.530	.364	18
	함경	9	2.542	.455		
문화적 이질감	평안	10	3.525	.399	1.526	18
	함경	9	3.236	.345		

**V. 결론**

본 연구는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에 기반하여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이 좋은 탈북여성과 그렇지 않은 많은 탈북여성의 문화적응 기제를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탈북여성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으로 통합형과 동화형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여 탈북여성의 북한 특성에 기반한 문화적응 기제에 관한 이해와 다른 유형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했던 탈북여성들이 느끼는 문화이질감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erry 등(1974)과 Ward 등(1993)의 연구에서는 두 문화 간 거리감을 많이 느낄수록 문화적응 수준이 낮다고 밝혀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문화에 대한 지각된 이질감이 크다고 해서 부적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화 차이에 대한 지각이 남한 문화 지향성을 더 갖게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적 적응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문화지향성, 지각된 동화압력, 문화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말할 수 없으나 본 연구 참여의 탈북여성은 대체로 남한문화지향성이 높고 북한문화지향성이 낮으며 문화적 유능감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 193명을 대상으로 Berry의 문화적응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한 김윤나(2008)의 연구에서 통합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46명, 동화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44명, 분리형의 경우 50명, 주변화형의 경우 53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형에 해당되는 탈북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탈북여성이 5년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 지각된 동화압력은 우울감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강화시키기도 하지만 사회정체감, 문화 유능감 증진에 기여하고 있었다. 출신성분에 따

른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문화적 유능감, 지각된 동화 압력, 문화이질감의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경북도 출신 탈북자를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문화예술 수용 태도를 연구한 조현성(2015)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청년기의 문화 수용 태도는 분화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속성 보다 출신 성분가족사, 삶의 경험과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이들에게 출신성분가족사가 표면화된 생활을 하면서 체제와 문예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유일사상체제 형성 이후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20~30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을 맞이한 함경북도 주민의 문화예술 수용 태도는 동질적이지만 동질성 내에서도 주관적 경험에 따라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출신성분가족사가 유사하더라도 차이가 발생함을 연구자는 밝히고 있어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화된 발전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원 및 하나센터 등의 탈북여성 대상의 교육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심리적인 전략을 잘 수립하여 문화적 유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하나원에서는 인권교육이 없는 상태이며, 지역중심의 하나센터에서도 법·인권교육 관련 내용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하나원 및 하나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은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체성을 가지며 적응해 가는지에 대한 재프레이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 권리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그리고 다른 글로벌 다문화 상황에서 난민과 이민자측면에서의 교육방안을 조명해볼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초기 정착단계에서 문화정체성을 잘 확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전체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과정을 잘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신성분에 따른 탈북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북한사회에서의 주관적 경험보다 각 개인별 특성을 좀 더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범주로 모든 북한 주민들을 두는 것은 어떤 그룹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연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시스템과 북한이탈주민의 각 개별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에서 초기에 이러한 지원 노력에 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응 지원에 있어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탈북여성 대상의 문화적응 지원은 거의 전무하며 취업 및 부모 교육에 주로 의존하며 탈북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와의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탈북여성이 문화적응 수용태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제반사항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확대,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의 정책연구용역 및 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각 개별 특수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잘 파악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없도록 각 특성에 기반한 보다 촘촘한 연구들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포함되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체계가 보다 확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법률적 근거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기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남한 사회 인식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각 집단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지원정책 내용이 담겨져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한사회 문화적응에 있어서의 재북특성에 관한 의미있는 고려를 시도하고 남한 내 거주하는 탈북여성의 특성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적응 과정은 특정한 시점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시간의 흐름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17].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정확한 적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개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일 경우 세력화되고 독특한 집단 문화를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자신들의 처해 있는 집단의 위상과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심리적 적응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세연구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분석한 내용은 한시적으로만 유용성과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여건과 정착 여건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의 적합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다시 검증해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과제번호 2014S1A5A8019031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관계부처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1] Geum, myeong-ja. Gwon, hae-su, .Lee hui-su, "Understanding the cultural process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sychology, vol. 16, No. 2, pp. 295-308, 2004

[2] Gil, Eun-Bae. Mun Sung-ho,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Supporting Plan of North Korean Deaf Youth

in South Korean Society. Seoul: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2003.

[3] Kim, Yoon-Na, An Integrated Study on Adaptive Flexibility Affecting Cultur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af-Adolescents,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8.

[4] Kim, Jae-woong, Restructuring the Class Structure of North Korea's People's State: 1945 ~ 1950",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14

[5] Kim, Ji-hee, Kim, Woongjin, "Strategies for comparative regional research - Methodological reflection", Sports: Human Love, 54, 2003.

[6] Kim, Hyung-Tae, A Comparative Study on the Adaptation Types of North Korean Degraded Youth to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 2004.

[7] Kim, Hee-Jin, Effects of TSL Family Program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and Couple Adjustment of Missing Women: Focusing on Biomedicosocial (BMS)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Yonsei Univ. 2013.

[8] Park, Shin-Soon, A Study on the Change of Family Relations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Family Life in North Korea, China and Korea,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 2014.

[9] Park, Yoon-Sook,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Adaptation to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Seoul women university, 2006.

[10] Shin, Nan-hee, A Study on the Diaspora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Adaptation Strategy and Behavior of North Korean Women,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2014.

[11] Ahn, Tae-yoon, "An Elite North Korean Women's Life History and Women's Life under the Division System", Women and History, 22, pp. 235-274. 2015.

[12] Yoon, In-Jin,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ocial Adaptation: Focusing on North Korean Refugees", Modern North Korean Studies, 3 (2), pp. 123-184. 2000.

[13] Lee, Hwa-jin, The process of human rights violation and identity change through marriage in North Korea, China and Korea: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on women in North Korea, Ph.D. dissertation, Hanyang Uni. 2010.

[14] Jeon, Hyeon-Ran,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North Korea Classification Project", North Korea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3.

[15] Jeong, Young-Ae and Kim, Yoon-Na, Survey on the work-family compatibility of women in North Korea, Seoul: South and North Korea Foundation. 2013.

- [16] Cho, Hyun Sung, North Korean Residents' Acceptance of Culture and Arts: Focusing on North Korean Defectors from North Hangyong Province, Doctoral Thesis of North Korean Graduate University. 2015.
- [17] Chae, Jung-min, Psychological Culture Adaptation Mechanism and Adapt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18]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 Summary, Seoul: Ministry of Unification, 1999, 2000.
- [19] North and South Korea Foundation  
<http://www.dongposarang.com>
- [20] Scala Column "North Korean Discrimination Origin System", Free Asia Broadcasting, Greg Scarati – Journalist from Romania, 2012-06-12  
[http://www.rfa.org/en/commentary/greg/greg\\_Search\\_for-gs-06122012114755.html](http://www.rfa.org/en/commentary/greg/greg_Search_for-gs-06122012114755.html), February 20, 2017
- [21] Berry, J. W.,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1980.
- [22] Berry, J. W., Psychology of acculturation: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In R. Brislin (Ed.), Applied cross-cultural psychology, pp. 232-253, Newbury Park, CA: Sage. 1990.
- [23] Berry, J. 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pp.5-34. 1997.
- [24] Berry, J. W. & Sam. D.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H.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oston: Allyn and Bacon. 1997
- [25] Guba, E. G.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김윤나**(Yun-Na kimberlite)

2005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 석사)  
2008년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전공(사회복지 박사)

2000년~2003년: 중앙대학교부설종합사회복지관  
2009년~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연구위원  
2012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2013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creative techno-leaders program for CEO  
2010년~현 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인권, 디지털융복합연구



**주경필**(K. P. Joo)

2007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 석사)  
2013년 :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학습수행시스템학과(철학 박사)

2010년~2013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그레이트밸리 전문대학원 온라인프로그램코디네이터  
2013년~2014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확장교육프로그램 박사후과정 전문 연구위원  
2014년 : 고려대학교 객원연구교수 및 대학원 외래강사  
2010년~현 재: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위원장  
2014년~ 현 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학대학 청소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청년교육, 불평등, 대안교육, 학습수행시스템